



제비떼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는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문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여기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쥔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김기섭 추천>

다섯 연으로 된 짧은 자서전_작자 미상

1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2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체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 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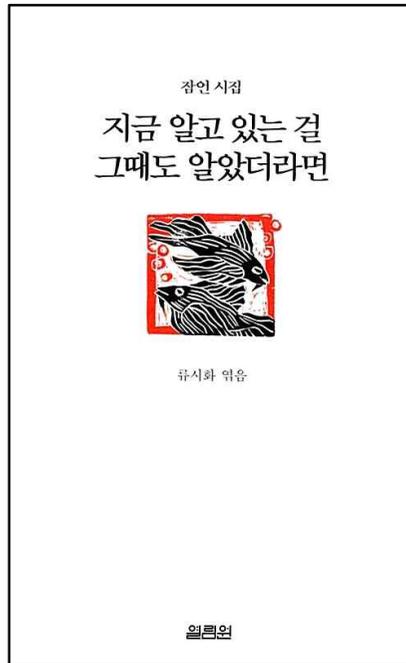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난 얼른 그곳에서 나왔다.

4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 돌레로 돌아서 지나갔다.

5

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류시화 시인이 엮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에 나오는 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각은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생존하는데 급급해 살아지는 대로 삶을 삽니다. 자각없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로 말이맘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3

<유영희 추천>

일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_김해자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이 구호는 병들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고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진 노동은 시체를 쌓는 강
고용과 합체가 되어버린 노동은 죽음의 춤사위
해서는 안될 일, 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
그댄 뇌물과 청탁을 받을 의자도
비리와 조작을 지시할 상관도 끈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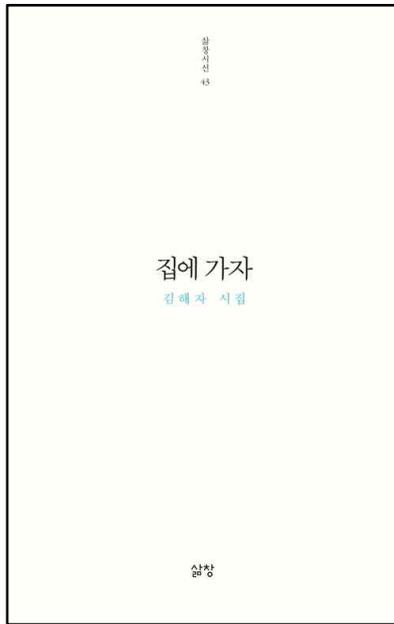
만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아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목숨줄은 하나
하나의 위 하나의 심장에 똑같은 생존권을!
적자생존은 거짓말이다
나무도 뿌리가 얽혀 물을 나눠 가진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세포들도 막을 통해 양분을 주고받는다

만국의 백수여 당당하라. 그대 손은 백개,
탄식하며 부끄러워하는 흰손이 아니라
손 벌리는 곳마다 달려가 그의 손이 되어주었다
하늘 우러러 땅에 엎드려 생명을 키웠다
새벽이슬 덮고 지는 달을 노래하고 톱니바퀴 바깥에서
인류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
환전한 수 없는 눈물을 그렸다

만인의 것 만인에게 돌려주라,
가난과 사랑과 고독과 자유를 어찌 수치로 쟈 수 있으랴
서류 더미로 만인의 불운을 판정하지 말고

구걸하듯 불행을 꾸미지 않게 하라
선심 쓰듯 주지 말고 봉사도 노동도 강제하지 마라
받기 위해 주는 자는 서로를 타락시킨다
보이지 않은 데서 모르는 자의 등을 밀어주게 하라

프롤레타리아조차 되어본 적 없는 만국의 백수여,
단결하라 각자,
삽과 곡괭이와 노래와 막걸리와 춤으로
끝과 망치 붓과 물감으로 그대의 행복실험실을 경영하라
머잖아 그곳에서 진실로 함께 사는
신인류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리라



‘신성한 노동’이란 말이 잘못된 표현이 되어버린 현실. 어디서부터 잘못 된것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시. ‘노동’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현 시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만인의 것 만인에게 나누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일. 기본소득은 함께 돌봄의 가장 근원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 이 시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수연 추천>

희망_도종환

그대 때문에 사는데
그대를 떠나라 한다

별이 별에게 속삭이는 소리로
내게 오는 그대를
꽃이 꽃에 닿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대를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고
사람들은 내게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섰듯이
알맞은 시기에 그대를 떠나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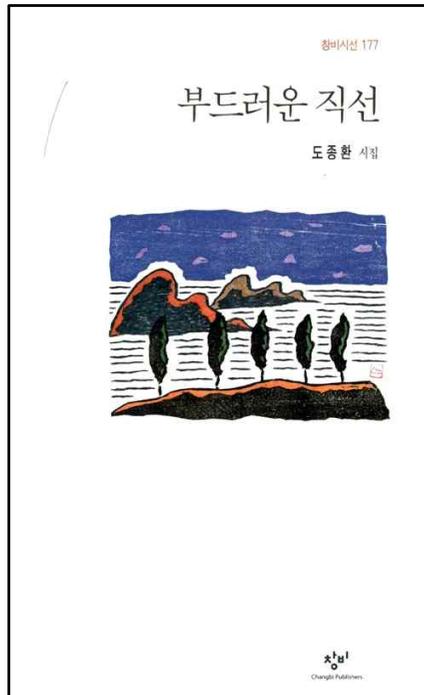
그대가 있어서
소리없는 기쁨이 어둠속 촛불들처럼
수십개의 눈을 뜨고 손 흔드는데

차디찬 겨울 감옥 마룻장 같은 세상에
오랫동안 그곳을 지켜온
한장의 얇은 모포 같은 그대가 있어서
아직도 그대에게 쓰는 편지 멈추지 않는데

아직도 내가 그대 곁을 맴도는 것은
세상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사람 사는 동네와 그 두터운 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아궁이가 스스로 불씨를 꺼버린 방에 앉아
재마저 식은 질화로를 끌어안고
따뜻한 온도를 추억하는 일이라 한다

매일 만난다 해도 다 못 만나는 그대를
생애 오직 한번만 만나도 다 만나는 그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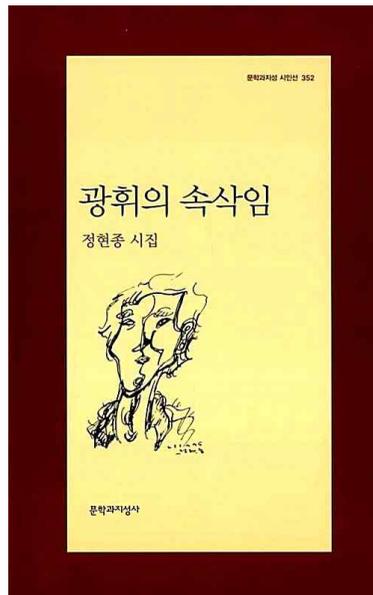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시의 마지막 문단이 그 마음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아 추천했습니다 ㅎㅎ

<송원석 추천>

방문객_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중 시인

아이들을 만난다는게 어느 순간 큰 부담이 됩니다.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안내하고 조력하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인식한 순간부터 그러합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갈피를 잡기 어려워서 시인이 말한 바람이 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드니 바람보다는 햇빛이 되어주기가 쉬운 듯하여 오늘도 제일 일찍 학교에 가 교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오히려 환대받고 있는 것은 저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나경호 추천>

면도 2_박석수

비겁한 것은
살 속 깊숙이 숨어 가
그리움이 되고

소중함 것은
살 밖으로 나타나서
털이 되는데

코 밑에서 턱 밑에서
이렇게
밀어도 밀어내도

자꾸자꾸 뜨거움이 되는데
눈물이 되는데 왈칫 흐느낌이 되는데

애인이여, 내가
시퍼런 면도날이 되어
잠든 네 목젓을 누르거나

네가 예리한 면도날이 되어
잠든 내 목젓을 눌러야만,
그래야만

우리들의 언어는
비명이 되거나 피가 되거나,

되어서 쓰러지거나 일어서거나 하겠지,

누가 시퍼런 면도날로
이 발음 안되는 내 목젓을
힘껏 눌러 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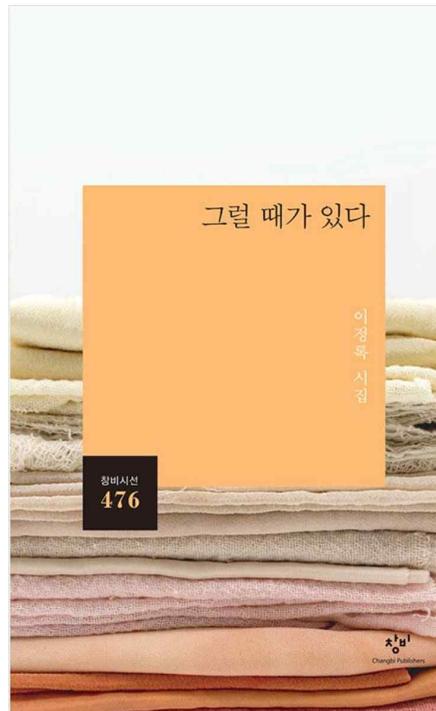


박석수 시인은 1949에 태어나 1996에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위 시는 비장하지만 아름다워서 추천했습니다

<김경윤 추천>

무지개_이정록

슬몃 자개농 짝을 어루만지는 걸 보니
너도 이제 제법 나이를 먹었는가보다
어미가 저 전복 패한테 배운 게 있다
무엇이든 겉만 보고 가름하지 말거라
누구나 무지개는 가슴 안쪽에 둔단다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소재로 정력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진다.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를 소재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은 참으로 부럽다. 나는 고향이라고 할만한 것도, 부모라 할만한 것도 추억거리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문>

나를 찾아 떠나는 한 토막의 편지 여행

〈고양신문〉 인터넷판 2023.2.28.일자



초보 글쟁이 10명 참여 '참새편지'
출간 맞아 27일 북토크 '참새쇼' 진행
관객참여형 공연, 자유질의 등 쌍방향 행사

"글을 쓴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글쓰기만큼 나를 들여다보는 솔직한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느꼈죠."

지난 27일 저녁, 한양문고 주엽점 한강홀에서 편지 모음집 '참새편지' 출간 기념 북토크가 열렸다. 차분한 평일 저녁 분위기 속 다채로운 배경을 지닌 6명의 필자와 관객들이 글에 담긴 진짜 '나의 모습'을 듣고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날 진행자로 나선 참새방앗간 지기 김경윤 작가는 10명의 초보 글쟁이들이 매일 편지로 보내온 556개의 글 중 직접 고른 진솔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필진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세 편의 글을 싣는 것으로 참새편지의 긴 여정은 완성됐다. 어느 책모임중독자의 책 리뷰 글부터 워킹맘 다이어리, 주민자치일기, 백수활동 일기 등등 각 필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엮어낸 ‘참새편지’는 각기 다른 고민과 정직함을 품고 있다.

필자 김경윤, 임은정으로 결성된 인디밴드, ‘굿바이 농약’과 관객들이 함께 부른 첫 공연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이야기장이 열렸다. 김민애, 유영희, 김기섭, 송원석, 임은정, 김경윤 총 6명의 필진은 차례로 자신의 글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며 당시의 감정과 생각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어진 질문답변 자리에선 관객들도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나’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생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필진으로 참여한 김기섭 씨는 “이번 참새편지에 보낼 글을 쓰며 ‘글’을 쓴다는 것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다”라며 “내 삶을 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도 있었지만, 글 쓰는 근육이 발달하며 용기도 더해져 현재는 글쓰기를 매우 즐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매주 2편씩 지난해 70편 정도의 글을 보내온 김 씨는 참새편지 중 몇몇 글은 자신이 과거에 쓴 글을 재활용했다고 털어 놓으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 다른 필진인 송원석 교사는 “교사로 30년 정도를 근무하면, 아이들이 덩어리로 보인다. 학생들의 각기 다른 성격과 튀는 인격에 점차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교사로 서 근무한 오랜 시간 후 겪을 수 있는 흔한 슬럼프이다”라며 “참새편지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냈다. 어쩌면 참새편지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교사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준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라고 회상했다.



책을 펴낸 참새방앗간은 회원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인문학 놀이터이다. 2019년 한양문고 내 문을 연 곳으로 독서, 수다, 강의, 낙서, 기획 등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고 즐기는 ‘딴짓러’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양문고 주업점의 공간을 빌려 매달 문학, 음악 등을 주제로 ‘참새쇼’라는 정기 행사를 진행한다. 참새방앗간 말고도 한양문고는 ‘진짜인문학’, ‘하우스 콘서트’ 등 여러 문예 행사를 진행 및 지원하며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윤시영 인턴기자)

〈다음달 참세쇼 광고〉

한 달에 한 번 문학의 밤

참석한 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문학의 밤 행사입니다.

행사 전후로 책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에 맞는 책을 가져오셔서 교환하거나 기증해주세요.

- 일시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7시
- 장소 : 한양문고 주엽점 한강홀
- 신청 : 김경운(HP 010-3208-0896 메시지나 톡으로 신청해주세요)

■ 월별 내용

월	월/일	내용	비고
3월	3/27	말로 지은 집, 시(詩)	시집 나눔
4월	4/24	상상으로 지은 작은 이야기, 소설(小說)	소설 나눔
5월	5/29	우리 속에 어린이들, 그림책과 동화(童話)	그림책 나눔
6월	6/26	그림으로 만든 만화방창, 만화(漫畫)	만화 나눔
7월	7/31	어둠 속에서 쏘아올린 무지개, 영화(映畵)	영화 나눔
8월	8/28	내면에 숨겨둔 이야기, 일기(日記)	일기문 나눔
9월	9/25	그리움을 너에게 보낸다, 편지(片紙)	서간문 나눔
10월	10/30	마음이 원하는 곳을 따라 쓴 글, 수필(隨筆)	에세이 나눔
11월	11/27	내 마음을 리듬을 싣고, 노래	노래 나눔
12월	12/18	그대에게 내 마음을 보낸다, 선물(贈物)	선물 나눔

4월 참세쇼

시전. 소설책 전시 / 1부. 소설 낭송 / 2부. 소설 나눔과 친교

APR. 24

상상으로 지은 작은 이야기, 소설(小說)